

# 고양시

## 도시 곳곳을 '문화 예술'로 채운다

### 예술창작 지원·소외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·행주산성 야간 개장

경기 고양시는 생활권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고 문화·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. 시는 일산동구와 덕양구에 각각 건립된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전시·공연 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.

특히 고양어울림누리에는 메인·보컬 부스, 녹음실, 연습실, 합주실 등을 갖춘 음악창작소가 지난 3월 개관돼 지역 음악인의 활동을 돕고 있다.

또 시민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'고양문화다리'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 22건, 창작 8건, 신진 예술가 발굴 11건, 예술단체 정기발표 12건 등을 올해 지원한다.

공식 거리예술 단체인 고양버스커즈는 지난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행신역, 대화역, 덕양구청 가로수길, 화정중앙공원 등에서 퇴근길 공연을 벌였다.

시와 협력한 26개 공연 단체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자 요양원과 복지관, 특수학교 등을 찾아가 음악, 무용, 연극, 전통예술 등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.

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연간 10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해 문화·예술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.

시는 또 매년 여름 두 달간 운영해오던 행주산성 야간개장 기간을 연장한다.

그동안 7~8월 둘째, 넷째 토요일 오후 6시~10시 무료 관람이 가능했던 야간 개장 기간이 3~10월로 늘어난다.

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대승을 거둔 전적지로 해 질 녘부터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과 아름다운 한강 경치를 함께 볼 수 있어 야간 관광 명소로 인기가 높다.

관람은 산성의 시작 지점인 대첩문을 지나 권을 장군 동상과 기념관, 덕양정 등을 둘러본 다음 대첩 탑이 있는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는 순으로 이뤄진다.

입장은 오후 9시에 마감되고 주차는 제1·제2주차장을 이용하되 야간 개장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들어와야 무료다.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악화 때는 관람이 중단된다. ▼



1, 2 행주산성 야경 3 퇴근길 길거리 공연을 하는 고양버스커즈 4 고양시립 아람미술관



#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**고양원픽** 공유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!

맛한 소식과 정보를 **원해?**

**모바일로** **꼭해!**

# 고양원픽

G O Y A N G O N E P I C 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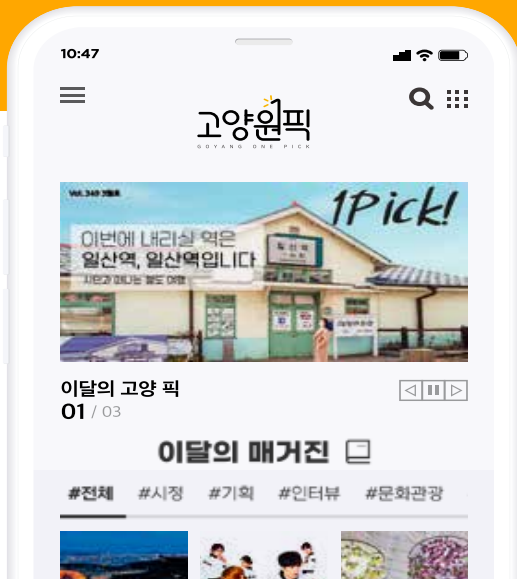


고양원픽.kr



## 2022. 8. 8.(월) ~ 8. 29.(월)

※ 자세한 사항은 고양원픽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


스타벅스 기프트콘  
아메리카노 2잔



80명

고양고양이  
인형



20명